



# 여자양궁 '왕좌본색'

리커브 단체 대만 꺾고 6연패  
통산 11번 대회서 9회 우승

한국 여자 양궁이 대만을 꺾고 아시안게임 단체전 6연패에 성공했다.

장혜진(31·LH), 강채영(22·경희대), 이은경(21·순천시청)은 2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겐로라 봉 카르노(GBK) 양궁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리커브 단체전 결승에서 대만을 세트 승점 5-3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여자 양궁은 지난 1998 방콕 아시안게임부터 6개 대회 연속 아시아 정상에 굳건히 지켰다.

1978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양궁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11번의 대회에서 여자 단체전 9번 우승하며 아시아 최강자 지위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여자 양궁 리커브 대표팀은 앞서 개인전에서 장혜진과 강채영이 8강과 4강에서 차례로 패하며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하지 못하고 흔들렸으나 이내 충격을 딛고 기쁘히 결승까지 올라와 정상을 지켰다.

최근 기량이 급성장한 대만과의 결승전은 예상대로 팽팽했다.

이은경이 첫 발을 10점에 꽂아놓고 기본 좋게 출발한 대표팀은 장혜진이 마지막 화살도 10점에 꽂으며 1세트는 승리해 승점 2점을 먼저 챙겼다. 그러나 2세트에선 8점이 두 개 나오며 대만에 승점 2점을 내줬다.

3세트는 양 팀 모두 10점 4개, 9점 2개를 쏘며 승점 1점씩을 나눠가졌다. 마지막 5세트에선 첫 3발

에서 1점을 뒤졌으나 이후 3발에서 2점을 만회해 극적으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만연니 장혜진은 "어려운 상황에서 한마음을 모아서 탄 메달이라 어떤 메달보다 값있다"고 기뻐했다.

장혜진은 "동생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믿고 따라와 줘서 기쁘다"고 동생들에게 공을 돌렸다.

강채영은 "긴장 많이 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내 고생했던 것만큼 좋은 성적을 냈다"며 "마지막 혜진 언니의 10점이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대회에 나선 막내 이은경은 "너무 기쁘다"며 말을 잊지 못하고 기쁨의 눈물을 닦았다.

앞서 여자 개인전 연이은 충격패로 흔들렸던 선수들이기에 이번 금메달은 평소보다 큰 위안을 주는 성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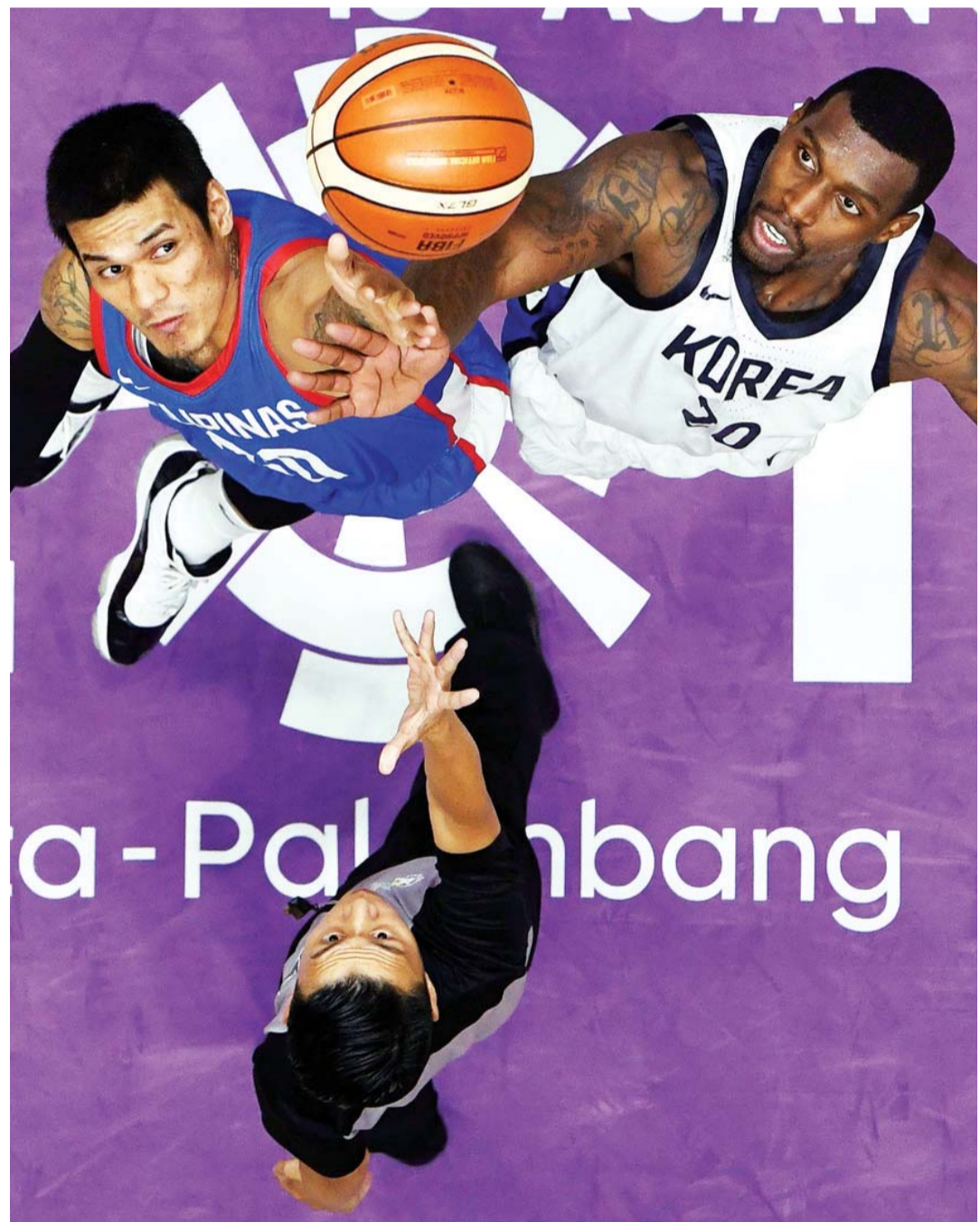
개인전, 혼성전 8강 탈락으로 마음고생이 심했을 장혜진은 "제가 못 쏘서 양궁을 응원해주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게 실망을 드렸다는 마음의 상처가 제일 크다. 한국 양궁에 대한 믿음을 제가 무너뜨렸을거 같아 힘들었다"며 "값진 메달로 위로를 받은 듯해 좋다. 이번 대회가 한국 양궁의 또다른 도약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합대회에 처음 출전해 개인전 준결승에서 석패한 강채영도 언니, 동생과 함께 한 단체전에서 더욱 힘을 받았다.

그는 "저보다 팀원들을 더 믿었다"며 "개인전보다 긴장도 덜 된다. 서로 믿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렇게 기쁠수가..." 27일 오전 (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겐로라 봉 카르노(GBK) 양궁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여자 단체 결승 한국과 대만의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장혜진, 강채영, 이은경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4강 잡아라~" 2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겐로라 봉 카르노(GBK) 스포츠 콤플렉스 농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농구 8강 한국과 필리핀의 경기에서 양 팀 선수들이 경기를 시작하며 공중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날 한국은 필리핀에 91-82로 승리해 4강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 '우생순 신화' 다시 한번

女 핸드볼 30일 결승...男 농구 4강

우승을 노리는 한국 남자 농구대표팀이 난적 필리핀을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대회 2회 연속 금메달 사냥에 나선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태국을 누르고 결승에 올랐다.

농구대표팀은 27일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농구 8강에서 필리핀에 91-82로 승리했다.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준결승에서 태국을 40-13

으로 완파했다. 우리나라는 30일 대회 2회 연속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한국 여자 핸드볼은 6연패를 노린 2010년 광저우 대회에서 동메달에 그친 뒤 2014년 인천 대회에서 다시 금메달을 땀다.

남자 핸드볼 대표팀은 카타르에 20-27로 져 31일 동메달 결정전에 나선다.

카누 용선 남북 단일팀은 남자 용선 1,000m에서 동메달을 보냈다. 단일팀은 1,000m 결승에서 4분 36초 459의 기록으로 대만,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레이스를 마쳤다. /연합뉴스

# 여자축구 결승 길목 한·일전 외나무다리

오늘 4강전...양궁 남 리커브 결승 김우진·이우석 집안싸움

한국 여자축구대표팀이 결승 문턱에서 일본과 정면 대결을 펼친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은 28일 오후 4시(이하 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팔렘방 겐로라 스타디움에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일본과 4강전을 치른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5위인 한국은 조별 리그에서 3전승을 기록해 8강 진출에 성공한 뒤 홍콩을 5-0으로 완파하며 4강에 올랐다.

8강까지가 몸풀기였다면 일본과 4강은 이번 대회 최대 승부처다.

FIFA 랭킹 6위 일본은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후보다.

일본은 지난 25일 아시안게임 2연패를 노렸던

북한(10위)을 2-1로 누르고 4강에 진출했다.

한국은 지소연(철시 레이디스), 이민아(고베 아이나) 등 해외파 선수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수비벽을 뚫겠다는 각오다.

탁구에서는 남녀 단체전 메달 경기가 열린다. 남자 대표팀은 1990년 베이징 대회 이후 28년 만에 남자 단체전 정상탈환에 도전한다. 여자 대표팀도 세계 최강 중국에 도전장을 냈다.

일본이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겨냥해 여자 간판인 이시카와 카스미(세계 4위)와 이토 미마(세계 6위), 히라노 미유(세계 9위) 등 주축 선수들을 파견하지 않는 건 호재다.

양궁에서는 남자 리커브 결승에 나란히 진출한 김우진(정주시청)과 이우석(상무)이 '집안싸움'

을 벌여 메달 색깔을 가린다.

여자부에선 결승 진출에 실패해 충격을 안긴 가운데, 강채영(경희대)이 대만의 레이젠잉과 동메달을 놓고 다툰다.

이번 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스케이팅 보드는 남녀 스트리트와 파크 종목에서 첫선을 보인다.

스트리트 은주원(수택고), 최유진(한솔고), 파크 유지웅(배명중), 한재진(충남중)은 이날 예선전에서 결선 진출을 노린다.

스케이팅보드 대표팀은 이번 아시안게임 한국 대표팀에서 가장 어리지만, 성인 선수 못지않은 기량을 보이겠다는 각오다.

하키 남자 대표팀은 일본과 조별리그를 펼치고, 선동열 감독이 이끄는 야구대표팀은 홍콩과 조별 리그에서 대승을 노린다. /연합뉴스

# 자존심 구긴 한국야구 3연패 '험로'

대만 실업팀에 1-2 패... 엔트리 구성·용병술 팬심 싸늘

요란했던 '선동열호'가 대만 앞에서 자존심을 구겼다.

선동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야구대표팀은 지난 26일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B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대만에 1-2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한국은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프로 선수들로 팀을 꾸렸지만 실업 야구 선수들로 맞선 대만에 흔들렸다.

이날 패배로 대만에 조 1위 자리를 내준 한국은 아시안게임 3회 연속 우승을 향해 험난한 길을 가게 됐다.

명분도 실리도 잃은 패배는 점에서 야구팀을 지켜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지난 6월 자카르타로 가는 24명의 태극전사 명단이 발표됐을 때부터 안팎에서 말이 쏟아졌다.

'최강 전력'을 목표로 아마추어 선수는 단 한 명도 명단에 넣지 않았지만, 선발 기준은 모호했다.

멋대로 기준 속 '병역 혜택'과 맞물려 LG 내야수 오지환은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또 금지 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았던 두산 외야수 김재환도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태극마크를 달면서, 한국은 스포츠 정신에 오점을 남겼다.

선동열 감독은 지난해 11월 열린 U-23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APBC)을 통해 국가대표 전임 감독 데뷔전을 치렀다.

선 감독은 당시 대회를 치르면서 2018 아시안게임과 2020 도쿄올림픽을 언급했다.

챔피언십에 참가한 젊은 선수들을 아시안게임 대표로 우선 선발해 미래에 집중하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두산 함덕주와 KIA 임기영, 넥센 김하성, NC 박민우만 기회를 얻었다. 꾸준한 활약을 했던 넥센 외야수 이정후는 외면을 받았다.

반대로 임기영은 어깨 부상 여파로 시즌 내내 기복을 보였던 만큼 논란의 이름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 발탁하지 않은 선수들에 대한 신중하지 못한 사령탑의 발언까지 겹치면서 임기영은 괜한 마음고생을 했다.

한국은 '최고의 대표팀'을 뽑았다고 큰소리는 쳤지만 대회 개막을 1주일도 남겨두지 않고 부랴부랴 엔트리 4자리를 교체했다.

최정(SK), 박건우(두산)의 부상 속 차우찬과 정찬원(이상 LG)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최원태(이정후 이상 넥센), 황재균(KT), 장필준(삼성)을 뒤늦게 선발했다.

요란했던 준비 과정을 통해 꾸려진 '최고의 대표팀'은 대만에 일격을 당하면서 논란이 거품을 부었



선동열 감독

다. 박수반지 못한 야구 대표팀의 가슴 졸이는 행보는 대회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